

[사회]

택시비 누굴 위해 올렸나 승객 감소에 우는 기사들

불황 겹쳐 매출 '뚝'... 미터기 조작 등 불법행위 잇따라

영업용 택시 기사 박모(33·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해 말 택시 요금이 오른 것이 결코 달갑지 않다. 불황으로 서민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400원씩이나 기본요금을 올리는 바람에 승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박씨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우는 승객은 30명 안팎으로, 요금 인상 전보다 3분의 1(10여명) 가량 줄었다.

박씨는 "요금 인상 이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 12시간을 꼬박 운전해도 겨우 10만원 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며 "올 들어 하루 평균 수입이 2~3만원은 줄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택시 요금이 오른 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불황과 서비스 개선 미흡 등의 여파로 되레 승객이 줄고 있어 택시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기사들이 사납금과 유지비 등을 맞추기 위해 미터기를 조작하는가 하면 여성 승객을 대상으

로 한 연쇄 강도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택시 타기를 더욱 꺼리고 있다.

3일 광주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택시 기본요금이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20% 오른 이후 매출이 오히려 '뚝걸음질' 하고 있다. 오랜 불황과 고물가의 그늘 속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됨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올 들어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8당 50원 가량 오른 데다 택시회사들의 사납금 인상 검토 등도 택시 기사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승객들에게도 큰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택시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일부 비양심적인 기사들이 미터기를 조작해 바가지 요금을 써우는가 하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의 최근 실태 조사 결과 미터기의 봉인이 끊긴 택시 4대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인 미터

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에서 운행중인 택시 8천264대 중 2천80대를 점검했으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심야시간대 탑승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한 달서 무려 7차례나 급콜을 빼앗고, 상륙 행한 택시기사 이모(3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승객 감소로 사납금 채우기도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담당하게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불황으로 인한 일부 택시 기사들의 도덕 불량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하고 있는 것이다.

주부 박모(27·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가짜나 요금을 올려 부담이 큰 데 미터기 조작이나 강도까지 기승을 부린다면 어떻게 택시를 타겠느냐"며 "서비스도 나야진게 없어 과연 누구를 위해 요금을 올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벌써 선거전?

정체 불명 ARS 조사

내년 선거...배경 관심

내년 6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최근 광주지역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내년 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이 이름을 알리고,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묻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이 여론조사에선 김모씨와 안순일 현 광주시교육감, 윤모씨, 이모씨 등 4명의 실명을 순

서대로 나열한 뒤 '인지도'(누구를 알고 있느냐?)와 '경험도'(행정과 교육 경험 중 무엇이 중요한가?), '지지도'(누구를 지지하느냐?) 등 세 가지를 물었다. 여론 조사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기관의 실체를 파악중이지만, 전화번호 등이 결번으로 처리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공무원 김모씨는 "갑자기 집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협조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얼떨결에 설문에 응답하긴 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선전문구 등이 없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9분 해질 18시 30분 달출 10시 56분 달몰 01시 12분

봄 햇살 그리워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해상에 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었다.

| 구분 | 최저/최고 | 구름 | 강수량 |
|-----|-------|---------|-------|
| 광주 | 0/11 | 흐린 뒤 맑음 | 0/10 |
| 목포 | 0/10 | 흐린 뒤 맑음 | 0/10 |
| 여수 | 3/12 | 흐린 뒤 맑음 | 3/12 |
| 완도 | 0/12 | 흐린 뒤 맑음 | 0/12 |
| 구례 | -2/12 | 흐린 뒤 맑음 | -2/12 |
| 해남 | -1/12 | 흐린 뒤 맑음 | -1/12 |
| 장흥 | -1/13 | 흐린 뒤 맑음 | -1/13 |
| 곡성 | -2/14 | 흐린 뒤 맑음 | -2/14 |
| 순천 | 2/13 | 흐린 뒤 맑음 | 2/13 |
| 영광 | -1/9 | 흐린 뒤 맑음 | -1/9 |
| 진도 | 0/11 | 흐린 뒤 맑음 | 0/11 |
| 전주 | -2/11 | 흐린 뒤 맑음 | -2/11 |
| 남원 | -3/12 | 흐린 뒤 맑음 | -3/12 |
| 옥산도 | 3/7 | 흐린 뒤 맑음 | 3/7 |

|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남동 | 0.5~1.0m | 목포 07:09 | 12:18 |
| 연안 | 북~남동 | 0.5~1.5m | 19:04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 | 0.5~1.0m | 여수 01:45 | 07:49 |
| 연안 | 북~동 | 1.0~2.0m | 13:21 | 20:12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5(목) | 6(금) | 7(토) | 8(일) | 9(월) | 10(화)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4/11 | 2/8 | -1/11 | 0/11 | 1/12 | 1/14 |

춘雪... 大雪... 출근길 혼란

영광 적설량 14cm 쌓였을 때의 깊이를 나타내는 최신 신적설이 8.5cm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값을 기록했다.

이날 내린 눈으로 오전 7시20분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 OZ 8700편이 결항했으며, 오전 8시30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서울발 아시아나 항공 OZ 8701편도 결항됐다.

광주시내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인 양이었지만 출근길 운전자들이 서행운전을 해야 했으며, 보행자도 불편을 겪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원로 교수, 동료 교수들 비판 글

"잘난 체하고 대접받기 원한다 선후배간 서로 너무 기대려해"

논란 일자 삭제

전남대의 한 원로 교수가 동료 교수들의 성향을 비판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는 최근 내부 게시판 '용봉아미'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들의 성향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A교수는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교수들의 과도한 권위 의식과 선후배 간 예의 부족 및 무질서 등을 지적했다.

C교수는 "전남대 교수들이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서 "5만원짜리 토론회나 한 달에 20만원 남짓하는 학진 프로젝트에 참여했느냐 여부 등 이해관계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 개강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실 개강식'이 3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은 초·중·고급반으로 나뉘어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교조 자체 진단평가 '맞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 당국과는 별도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자체 진단평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3일 "학기 초에 조합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파악해 학생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초·4~6학년생으로 국어 등 교과 과목 외에도 학생의 관심도와 지적 욕구, 인성, 행동발달 상황 등이 모두 평가항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롯데관광 LOTTE TOUR.com

38년전통·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 광주첨단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 목포점 061-244-5332
 의산점 063-843-3800 | 권주롯데점 063-289-2955
 군산점 063-245-0306 | 권주서흥점 063-282-3210
 광주롯데점 062-227-5310

2009 Spring Honeymoon

3박3일 패키지

₩1,699,000부터

3박3일 패키지

₩1,499,000부터

가족사랑 & 나눔 Event **환영리가 간다**

가장 내용은 www.LOTTETOUR.com 참조하세요!

4월 1일부터 1월 공판!

무한출발 롯데관광 38주년 & 광주지사 OPEN 2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전

배낭여행 & 상하이 ₩499,000부터

배낭여행 & 상하이 ₩349,000부터

배낭여행 & 상하이 ₩439,000부터

신혼여행 ₩269,000부터

상해, 항주, 소주 4일 ₩259,000부터

상해, 장가계, 항주 5일 ₩899,000부터

상해, 황산, 항주 5일 ₩519,000부터

신혼여행 ₩1,049,000부터

신혼여행 ₩1,049,000부터

신혼여행 ₩2,390,000부터

신혼여행 ₩2,590,000부터

1000원의 행복 **나눔여행**

부산출발 **일본취리** ₩299,000부터

부산출발 **아소, 베투 온천** ₩399,000부터

부산출발 **후쿠오카, 유후인, 베투 온천** ₩399,000부터

제주도 패키지 ₩229,000부터

제주도 자유여행 렌터카 ₩259,000부터

제주도 올레길체험 ₩219,000부터

제주도 패키지 ₩266,000부터

제주도 패키지 ₩167,000부터